

Frailty의 한국어 용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원장원

Korean Terminology for Frailty

Chang Won Won,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Frailty” in geriatrics is thought to encompass a variety of phenotypes not fully explained by current definitions of disease or disability. In Korea, “frail” has been translated using various meanings and terminologies, for example, weakness, senescence, vulnerable, requiring care, and functional impairment. However, none of these expressions alone fully represents the frailty that we understand as the geriatric syndrome. Further, among the Asian countries that use Chinese characters in their language, different characters are used to express frailty; and again, none of these expressions fully represents frailty. This may suggest some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Asian and Western countries.

Key Words: Frailty, Terminology, Asia, Chinese characters

서론

노인을 진료하다 보면 기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하면서 이전에 수행하던 기능의 소실이 차츰 진행 되는 과정의 노인 환자를 흔히 보게 된다. 노인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frailty란 용어로 정의하며, 그 의미는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 저하와 더불어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리적인 예비 능력이 감소하여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저하됨으로써 여러 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아지며, 기능 의존이나 입원의 가능성이 증가된 상태이다¹⁾. Rockwood 등이 1999년에 frailty를 일상 생활 활동 가능 여부, 인지 기능,

대소변 조절 능력 등을 기준으로 정의한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¹⁾.

따라서 frailty란 용어는 개념과 그 범위에 있어서 학자마다 그리고 학문 영역 마다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한국에서도 다양한 한국어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 사전집(5판)에도 frailty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통일된 용어 선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와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를 이용해 ‘frailty’ 혹은 ‘frail’이 포함된 논문을 검색하여 분석하고 한자(漢字)를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frailty’에 대한 한자어를 조사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본론

국내에서 frail이란 단어가 처음 검색되는 논문은 Kim¹⁾이 1992년에 한국노년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frail을 ‘허약’으로 번역해 쓰고 있다²⁾. 이후 1997년에 대한노인병학회지에

▶Received: June 18, 2012 ▶Revised: June 18, 2012

▶Accepted: June 19, 2012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ang Won Won,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872, Korea
Tel: +82-2-958-8697, Fax: +82-2-958-8708
E-mail: chunwon@khmc.or.kr

Cho 등³⁾의 논문에서 frail 용어가 기술되어 있으며, 허약 또는 노약으로 번역하고 있다. 1998년에 Hur 등⁴⁾은 frail을 전신쇠약의 용어로 기술하고 있으며, 같은 해에 Han⁵⁾은 frail elderly를 만성 질환 노인으로 번역해 쓰고 있다.

한편, frailty란 단어가 처음 검색되는 논문은 Kim 등⁶⁾이 1998년에 대한가정의학회지에 게재한 것으로 ‘취약성’이란 용어로 기술하고 있으며, 계단을 오르는데 도움이 필요 여부, 보행을 제한하는 시력 장애, 보행 보조 수단의 사용 여부의 세가지 변수로 이를 설명하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999년에는 Kim⁷⁾이 physical frailty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신체적 허약’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체적인 허약에만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Frailty를 서양에서 제시한 정의대로 노인증후군의 하나로써 처음 소개된 것은 2000년에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출판한 교과서인 <노인병학>에서 권인순이 frailty를 노쇠라 칭하면서 기술한 것이다⁸⁾. 이후 대한노인병학회에서는 노쇠란 용어를 준용하고 있다^{19,11)}. 노쇠란 단어는 이미 1967년 정인희가 ‘노쇠와 요통’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이나 이 때의 노쇠는 frailty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¹²⁾.

간호 관련 학회¹³⁻¹⁷⁾와 체육 관련 학회^{18,19)}에 2000년 이후 frailty가 검색되는 논문에서는 일관되게 ‘허약’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한편 Kim 등²⁰⁾은 대한남성과학회지에 실은 논문에서 frail을 노약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번역해 쓰고 있다.

2000년 이후 노년학 관련 학회지에 frail 용어가 검색되는 논문들은 취약^{21,22)}, 요보호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²³⁻²⁶⁾, 심신기능 손상^{27,28)}, 허약^{29,30)} 등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ong과 Back³¹⁾의 법률 논문에서는 frail을 요보호로 번역해 쓰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는 frailty를 노쇠로 번역해 사용한 논문이 두 편 있으나, 모두 대한노인병학회 회원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기 때문으로 보이며^{32,33)}, 기타 논문에서는 노환³⁴⁾, 허약³⁵⁾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된 1개 논문에서도 frail을 ‘노쇠한’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으나, 대한노인병학회 회원이 저자로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¹⁴⁾.

영어 사전(Cobuild English Dictionary, 1995)에 의하면 frail

은 서로 관련이 있지만 명확히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¹⁴⁾. 첫째는(특히 노인이) ‘노쇠한’이란 뜻이고, 둘째는 ‘허약한,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뜻한다. 전자는 나이가 들어 연약하며, 에너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아파 보인다는 뜻이다.

두산백과사전³⁶⁾에 의하면 노쇠(老衰, senescence)는 생체의 온전한 기관과 조직 등에 나타나는 노인성 퇴행 변화가 진행된 상태로, 나이가 들어 힘이 점점 줄어든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쇠는 frailty의 ‘허약한,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포함해내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한편 ‘허약’이라는 말은 우리말 큰사전에 의하면 ‘힘이나 기운이 없는’ 상태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¹⁴⁾. 즉, 허약이란 단어는 노화에 따른 쇠약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에 특정한 단어가 아니란 단점이 있다.

한편, 저자가 한자를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³⁷⁾, 대만은 쇠약(衰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허약(虛弱)이란 단어를 중국은 쇠약과 허약 모두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홍콩은 약노증(弱老症)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의 노쇠(老衰)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Table 1).

Table 1. Chinese characters for frailty in Asian countries

	Taiwan	Japan	China	Korea	Hong Kong
Frailty	衰弱	虛弱	衰弱(虛弱)	老衰	弱老症

결론

국내에서 frailty는 통일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연구자의 연구 영역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노쇠, 허약, 노약, 취약, 심신 기능 손상,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등의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노쇠, 허약 등의 어떤 단어도 frailty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된다. Frailty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한자 용어도 국가마다 서로 상이하며, 그 어느 것도 frailty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 영어권과 한자권의 어문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쇠든 허약이든 의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frailty를 병기해야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쇠(老衰)란 단어가 현재

까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용어 중 노인의 frailty를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라고 생각되며, 다만 ‘허약한,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쇠약(衰弱)이나 노약(老弱) 같은 용어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요 약

Frailty는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허약한’이란 뜻 외에도 외부 자극에 대해 쉽게 상태가 악화되어 나쁜 건강상 결과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며, 기존의 질병 명이나 장애 분류는 정의할 수 없는 노인 증후군의 하나이다. frailty란 용어는 개념과 그 범위에 있어서 학자마다 그리고 학문 영역마다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한국어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노쇠, 허약, 노약, 취약, 심신 기능 손상,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등의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Frailty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한자 용어도 국가마다 서로 상이하여, 대만은 쇠약(衰弱)이란 단어를, 일본은 허약(虛弱)이란 단어를, 중국은 쇠약과 허약 모두를 사용하고 있고, 홍콩은 약노증(弱老症)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쇠(老衰)란 단어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용어 중 노인의 frailty를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라고 생각되며, 다만 ‘허약한, 부서지기 쉬운’ 상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쇠약(衰弱)이나, 노약(老弱) 같은 용어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1. Kim KI. Frailty: a core geriatric concept. *J Korean Geriatr Soc* 2010;14:1-7.
2. Kim DB. Papers presented at the 3rd seminar on welfare for the elderly: suggestions to improv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J Korean Gerontol Soc* 1992;12:119-31.
3. Cho KH, Barker WH, Katz PR. Factors related to changes of ambulatory status in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J Korean Geriatr Soc* 1997;1:87-94.
4. Hur HK, Lim YM, Kim MC. Nursing diagnosis for aged persons in gerontological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1998;10:322-36.
5. Han GH. Role of the family as an Informal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the 21st Century. *J Korean Gerontol Soc* 1998;18:46-58.
6. Kim SW, Yang YJ, Eo KS, Cho HJ, Kim YS. Fear of falling in elderly persons living in a home for the aged. *J Korean Acad Fam Med* 1998;19:1400-9.
7. Kim HS. Effects of self-paced exercise on the daily living functional fitness in elderly women. *Exerc Sci* 1999;8:485-94.
8.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Textbook of geriatric medicine. Seoul: Uihakchulpansa; 2000.
9. Lee E, Lee D, Lee YS. Clinical experiences of testosterone replacement therapy in frail elderly patients. *J Korean Geriatr Soc* 2003;7:288-94.
10. Kim WS, Shin HI. Usefulness of the frailty and modified barthel indexes in the assessment of care grades in geriatric long-term care service. *J Korean Geriatr Soc* 2008;12:207-14.
11. Hwang HS, Kwon IS, Park BJ, Cho B, Yoon JL, Won CW.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frailty index. *J Korean Geriatr Soc* 2010;14:191-202.
12. Jung IH. Nosoiwa yotong-ilbaneuilul wihayeo. *J Korean Orthop Assoc* 1967;2:7-10.
13. Kwon SM, Park JS. A comparison on frailty,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perceived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type of residency.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10;35:1-12.
14. Choi K, Lee I. The concept of frail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J Rehabil Nurs* 2008;11:67-73.
15. Park YH. The current status of adult day care in Korea: operation, staffing, and service. *J Korean Acad Nurs* 2007;37:613-23.
16. Lee IS. Development of a community-based preventive health care model for the elderly in Korea through the evaluation of a Japanese counterpart. *Perspect Nurs Sci* 2010;7:10-22.
17. Kim YJ, Ha JY. The effects of visiting exercise program and telecoaching for physical activity promotion on physical fitness and quality of life in the frail elderly. *Korean J Adult Nurs* 2011;23:198-207.
18. Park SK, Kwon YC, Kim EH. The effects of combined exercise on self-reliance fitness, insulin resistance and blood pressure in frail elderly women. *Korean J Phys Educ* 2006;45:369-80.
19. Han YS, Choi CH, Lee PY. Development and effect of the customized health gymnastics program for the frail old. *Korean J Phys Educ* 2007;46:595-606.
20. Kim MJ, Rhee Y, Seo JT, Yang DY, Moon DG, Park NC, et al. 2006 KOSAR recommendations for investigation, treatment and monitoring of LOH in males. *Korean J Androl* 2008;26:8-10.

21. Kim YJ, Choi HK. Family caregiving services as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00;20:209-23.
22. Choi HK, Moon SJ, Jung SH, Cho JM, Kim EK. The effects of caregiving services on the frail elderly and their caregivers. *J Korean Gerontol Soc* 1999;19:15-30.
23. Yoon HS, Ryu SH. Factors associated with family caregivers' burden of frail elders- comparing spouse with adult children. *J Korean Gerontol Soc* 2007;27:195-211.
24. Kim HK. The impact of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are-recipients on the mental health of caregivers. *J Korean Gerontol Soc* 2004;24:129-44.
25. Han EJ, Kang IO, Kwon JH. A study of determinants on institutionalization of elderly using home care services. *J Korean Gerontol Soc* 2011;31:259-76.
26. Hwang JS, Kim JN. The study of resources use and caregivers stress in giving home-care for the frail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00;20:229-44.
27. Yoon HS, Cha HB, Cho SH.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and depression. *J Korean Gerontol Soc* 2000;20:1-19.
28. Lee HJ. An impact of family caregivers' filial obligation on caregiving burden and future care willingness for the frail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07;27:1015-30.
29. Kim CO, Lee HY, Ho SH, Park HS, Park CW. Effects of visiting prehabilitation program against functional decline in the frail elderly: a prospective randomized community trial. *J Korean Gerontol Soc* 2010;30:1293-309.
30. Song MS, Song HJ.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intensive health care program for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09;29:37-50.
31. Song IU, Baek YC.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 in japan for the frail elderly and its lessons to Korea. *Dankook Law Rev* 2011;35:275-311.
32. Ma SH, Jeung KY, Hong SH, Shim EY, Yoo SH, Kim MY, et al. Correlation between frailty level and disability of the elderly and frailty related factors. *Korean J Fam Med* 2009;30:588-97
33. Kim EI, Suh YW, Jung SH, Kim EY, Kim HY, Park MS, et al. Clinical significance of anemia in frail elderly patients admitted to the acute elderly care unit. *Korean J Med* 2007;72:44-51.
34. Kong KA, Baik IM, Chung YJ, Lee SH, Lee HS. Home visits in an office practice in Seoul. *J Korean Acad Fam Med* 2003;24:541-6.
35. Park BJ, Lee YJ. Integrative approach to elderly frailty. *Korean J Fam Med* 2010;31:747-54.
36. Doopedia [Internet]. Seoul: Doosan Co.; c2012. [cited 2012 Jul 14].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
37. Won CW. Differences in category of geriatric syndrome among Asian countries. *J Korean Gerontol Soc* 2012;16 (Suppl 1):24-5.